

요한계시록 강좌 다섯째 날 / 10월 23일

1. 두 짐승 / 로마에 대한 심판

- 1) 심판 선언 - 바빌론이 무너졌다. “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되다.” 13절
- 2) 금 면류관을 쓰고 낮을 든 인자 - 심판과 박해.

2. 마지막 일곱 재난 / 대접 재앙 15장

그런데 왜 대접 재앙일까?

- 1) 첫 대접 - 악성 종기 2) 둘째 대접 - 바닷물이 피가 됨. 셋째 대접 - 강과 샘물이 피가 됨. 4) 넷째 대접 - 화형, 로마의 화재. 5) 다섯째 대접 - 짐승의 왕좌, 어둠과 부스럼.
- 6) 여섯째 대접 - 큰 강 유프라테스, 동쪽 왕들이 오는 길. 7) 일곱째 대접 - 공중에 부었다. “다 되었다.”

3. 창녀에 내릴 심판

대접 심판 - 로마의 부에 대한 심판 / 음녀 심판은 - 로마 사람들의 음란한 성문화 심판

1) 여자/음녀의 모습

- (1)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았다.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, 머리 일곱 뿔 열 / 로마 황제.
- (2)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,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, 손에 금잔을 들었다.
- (3) 이마에 ‘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, 큰 바빌론.’ 바빌론 - 과거로 현재를.

2) 여덟 번째 왕 -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다시 나타날 것. 박해 황제 / 도미티안.

4. 바빌론/로마의 멸망 18장

- 1) 두 음성 / 바빌론이 무너졌다. 내 백성아, 떠나라!
- 2) 무너지는 바빌론을 바라보는 사람들 / 떠날 수 없는 사람들
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.
바빌론 상품의 정체는 노예, 사람의 목숨. - 생명의 상품화

5. 천년 왕국

- 1) 어린 양의 혼인 잔치
- 2) 흰 말을 탄 인자가 ‘짐승과 거짓 예언자’를 사로잡아서 유황 불바다에 던졌다.
- 3) 천년 왕국
(1)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!
(2) ‘사탄/용’에 대한 마지막 심판 :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영원히 사라짐.
(3) ‘천년 왕국’에 대한 오해와 시한부 종말론.

6.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- 21장

새 하늘과 새 땅 - 이전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, 바다도 사라졌다. 1절

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성전을 볼 수 없었다. 왜?

“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.” 22절

7. 생명수가 흐르는 강 - 22장

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- 새 창조 / 창세기와 비교.

- 1) 생명 나무 2) 생명 나무 열매 /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. 3) 생명 나무에 이르는 사람들. 4) 바깥에 남아 있는 사람들.
- 5) 인자의 약속 : 내가 곧 가겠다!

성도의 응답 : 아멘, 오십시오. 주 예수님! 마라나타!